2026.08.02. 주일설교요약

사역의 시작: 성령

본문: 마가복음 1:12-13절
(마가복음 강해 6)

- 오늘의 본문

> **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
> **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나 결과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동시에 사단의 집요한 공격도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과 승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단의 지속적인 공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단은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발걸음을 뗄 때도 사단의 끈질긴 공격이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성실한 만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을 향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광야는 사명을 위해 살아내야 할 세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척박하고 고독하며 맹수의 위협이 있는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살아내야 할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콩고에서 사역했던 플러드 선교사처럼, 때로는 고난과 좌절 속에 철저히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광야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천사들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담은 완벽한 에덴동산에서도 유혹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가장 결핍된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 40일간 철저히 기도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매일 감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한 성도님의 삶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끝이 없는 영적 전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사단은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승리

작고 큰 시험 앞에서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1. 현재 나에게 찾아온 고독하고 힘든 '광야(삶의 현장)'는 어디이며, 그곳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2. 사명이 흔들릴 만큼 최근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령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결단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은혜장로교회 고재국목사의 주일 설교를 요약한 내용입니다.